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스트레스와 간호근무환경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이지현, 박정숙*
고신대학교 간호학과

End of life care stress and Nursing Work Environment in Geriatric Hospitals Nurses affect burn out

Ji-Hyeon Lee, Jung-Suk Park*
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스트레스, 간호근무환경과 소진 정도를 파악하고, 소진과의 관련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 2016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B광역시에 있는 8곳의 요양병원 간호사 195명을 대상으로 임종간호스트레스, 간호근무환경, 소진에 관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사가 경험하는 대상자의 임종간호스트레스는 평균평점 3.84 ± 0.56 이며, 간호근무환경은 평균평점 3.25 ± 0.60 이며, 소진 정도는 평균평점 2.93 ± 0.52 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임종간호스트레스와 소진과는 상관관계를 보였고 ($r=.206, p=.004$), 간호근무환경과 소진의 상관관계는 역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431, p<.001$), 소진에 가장 중요한 유의한 변수는 간호직 만족도 ($\beta=-.302$)이었으며, 간호근무환경 ($\beta=-.294$), 나이 ($\beta=.286$), 근무형태 ($\beta=-.17$), 임종간호스트레스 ($\beta=.164$)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설명력은 41.2%였다. 따라서 요양병원 간호사의 소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간호사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지지적인 근무환경 조성 및 인센티브 제공, 효율적인 업무분담과 임종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차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Abstract This research is a descriptive correlation research for comprehending the end of life care stresses, work environment, and reduction of nurses in geriatric hospitals and analyzing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burnout. We recruited 195 nurses from 8 geriatric hospitals in B metropolitan city and collected data on the end of life care stress, work environment and reduction using organized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WIN 21.0 program. The average grade of end life care stress was 3.84 ± 0.56 , nursing work environment 3.25 ± 0.60 , and burnout 2.93 ± 0.52 .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end of life care stress and reduction ($r=.206, p=.004$) but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nursing work environment and reduction ($r=-.431, p<.001$).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the reduction was nursing satisfaction ($\beta=-.302$), followed by work environment ($\beta=-.294$), age ($\beta=.286$), duty style ($\beta=-.17$), and end of life care stress ($\beta=.164$). The overall explanatory power was 41.2%.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minimize the reduction of nurses in geriatric hospitals, the provision of a supportive work environment which enhances their pride and responsibility as a nurse and offers incentives is required with effective distribution of duties, development of the end of life nursing education and administrative tools for reducing their stress.

Keywords : Burn out, End of life care stress, Geriatric hospital, Nurse, Nursing work environmen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3년에는 12.22%였으며,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3%에 이르러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

*Corresponding Author : Jung-suk Park(Kosin Univ.)
Tel: +82-51-990-3978 email: cooler1978@kosin.ac.kr

Received February 24, 2017

Revised (1st April 3, 2017, 2nd May 16, 2017)

Accepted June 9, 2017

Published June 30, 2017

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 병원도 단기간 내에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16년 1/4분기 요양병원기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의 수는 1,383개이며, 2004년에 109개소였던 것이 불과 10년 만에 1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

요양병원의 간호사 정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당 1명을 기준으로 하되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범위 내에서 둘 수 있어[3], 2007년의 요양병원 간호조무사는 3,025명에서 2016년 25,734명으로 8.5배 증가한 반면, 간호사는 5,331명에서 18,936명으로 3.5배의 증가에 불과하였다[2]. 간호사는 다른 보건의료 인력 과달리 24시간 내내 환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간호 인력의 효율적 구성화 활용이 조직이 생산성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4]. 요양병원은 주 대상자가 노인계층으로 이들은 혼자 힘으로 병원 내에서의 생활이 힘들어 간호사나 간병인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많다. 이로 인해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가중되고, 소진이 사실상 일상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5].

소진이란 직업과 관련된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피로 및 탈진상태이며 스트레스를 감당해 낼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며[4], 간호사는 다른 직업인들에 비하여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이거나 이를 반복 또는 지속해서 경험하게 되면 결국 소진에 이르게 된다[6]. 소진은 부정적 업무태도 및 부정적 자아개념을 갖게 되어 업무의 생산성과 직업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여 그 결과 직장을 떠나게 된다[5]. 임상에서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는 환자와 가족들의 높은 기대와 복잡하고 다양한 직무내용, 과도한 업무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특히 신체적, 정신적, 영적 측면에 대한 많은 요구를 가지는 임종간호는 큰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한다[7]. 간호사들은 임종환자를 대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환자의 고통과 요구가 증가 할수록 간호사는 에너지 소모와 더불어 스트레스는 직업적 소진으로 이어지면서 환자를 돌보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며 심지어 이직과도 연결된다[8].

선행연구에 의하면 간호사들은 임종환자를 대할 때 바쁜 업무 때문에 의학적인 중재를 우선시 하고 임종환자를 대할 때 스트레스를 받아 회피하는 경우도 있으며,

부담감이나 공포, 좌절감, 우울감 등을 느끼기도 한다[9]. 죽음에 직면한 환자들의 간호요구가 증가되면서 환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간호와 의료정보를 제공해 주기 바라지만[10], 임종환자와 죽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환자를 간호할 때와는 다른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11].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대상자는 일반 급성기 환자들과 다르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12] 치료를 위한 것 보다는 가정에서 돌 볼 사람이 없어서 입원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입원한 노인의 대부분이 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어 간호사는 임상현장에서 죽음에 노출될 기회가 많다[13].

간호사의 소진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간호근무환경 인식정도가 낮을수록 소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5]. 간호근무환경은 단순히 일하는 장소의 의미를 넘어 간호사 개인이 지각하는 물리적 환경, 동료 간의 상호작용 및 병원의 정책적인 측면까지 포함하는 포괄간호근무환경이며, 간호 인력을 유지하고 확보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15], 환자의 안전 및 간호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6]. 간호근무환경은 소진에 영향을 주는 외적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17]. 근무환경이 간호사의 환자의 안전, 결과, 간호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근무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 하고 있다[15].

지금까지 요양병원 간호사의 소진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소진과 관련 요인으로 치매문제 행동 간호에 대한 부담[4], 요양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소진 및 직무만족도의 관계[18], 요양병원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19], 요양병원 간호사의 소진탄력성, 자아존중감과 이직의도[20]으로 요양병원 간호사의 소진과 임종간호스트레스, 간호근무환경과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스트레스와 간호업무환경, 소진의 정도 및 관계를 파악하고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소진을 낮추기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이 연구를 시도하려고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스트레스, 간호업무환경과 소진정도를 파악하고, 소진과의 관련요인을 확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임종간호스트레스, 간호근무환경, 소진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임종간호스트레스, 간호근무환경 및 소진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임종간호스트레스, 간호근무환경, 소진 정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스트레스와 간호근무환경, 소진의 정도 및 관계를 파악하고 소진을 중심으로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6개월 이상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로, 본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을 이해하여 참여하기로 동의하고 서명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G 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효과크기 .30 일 때, 177명이었으나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200부를 배부하였으나 부적절한 답을 한 경우를 제외한 195명을 분석하였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제 특성 15개 문항, 임종간호스트레스 40개 문항, 간호근무환경 30개 문항, 소진에 관한 20개 문항으로 총 10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1 임종간호스트레스

임종간호 스트레스는 Lee[17]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

하였다. 본 도구는 40개 문항의 5점 척도로 임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8개 문항, 임종환자에 대한 시간할애의 어려움 7개 문항, 임종환자 간호에 대한 부담감 7개 문항, 업무량 과중 5개 문항, 임종환자와의 인간적 갈등 6개 문항, 전문지식과 기술부족 3개 문항과 의료한계에 대한 갈등 4개 문항의 7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종간호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1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6이었다.

2.3.2 간호근무환경

간호사 근무환경은 Park[14]가 개발한 국내 간호사 근무환경 측정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기관의 지원, 수간호사의 리더십, 실무체계, 동료와의 관계의 4개 하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근무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Park[14]의 연구에서 측정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5이었다.

2.3.3 소진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Pine 등[21]이 개발한 소진 측정 척도를 Peek[22]가 번역한 도구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신체적 소진 6개 문항, 정서적 소진 7개 문항, 정신적 소진 7개 문항 등 총 3개의 하위영역으로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없다’ 1점, ‘가끔’ 2점, ‘보통’ 3점, ‘자주’ 4점, ‘항상’ 5점으로 각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 3,6,11,13,17,18,19는 역 문항으로 의미의 일관성을 위해 역환산하였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Pines 등[21]이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93이었고, Peek[2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8이었다.

2.4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본 연구는 사전에 K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의 승인(No:KU IRB 2016-70)을 받은 후 2016년 10월 1일부터 동년 10월 31일까지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본 연구자가 B광역시에 소재하는 8개의 요양병원에서 병원장과 간호부의 부장, 과장, 수간호사에게 허락을 받고,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여 동의를 얻은 후 서면 동의서를 받고 자료수집을 시작하였다.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제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임종간호스트레스, 간호근무환경, 소진의 정도는 각각 평균, 평균평점, 표준편차,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임종간호스트레스, 간호근무환경, 소진의 정도는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 ANOVA와 Scfefe's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제 특성

대상자의 제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41.06±10.26세이었고, 최종학력은 전문대졸이 60%(117)로 거의 대부분이었고, 요양병원 경력은 5년 미만이 61.5%(120)로 거의 대부분이었고, 총 임상 경력은 10년 이상이 46.2%(90)로 가장 많았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77.4%(151)로 대부분이었고, 종교 있음 군은 61%(119), 없음 군은 39%(76)였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74.4%(145)로 거의 대부분이었고, 임종관련교육 여부는 없다가 50.8%(99), 있다가 49.2%(96)이었다. 최근 1개월 동안 임종간호 경험 횟수는 2-3회가 40.5%(79)로 가장 많았고, 지인임종경험이 있다는 군은 54.4%(106), 없다는 군은 45.6%(89)였다. 월 평균 임금은 200-249만원이 65.6%(128), 근무형태는 교대근무가 49.8%(98), 고정근무가 49.2%(97)였다. 평균근무시간은 8시간이 79%(154)로 대부분이었고, 9시간이상이 21%(41)였다.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56.4%(110)로 대부분이었고, 그저 그렇다가 36.9%(72), 매우 만족한다가

6.7%(13)였다. 이직경험은 있음 군이 89.7%(175)로 대부분 이었다[Table 1].

3.2 대상자의 임종간호스트레스, 간호근무환경, 소진의 정도

대상자의 임종간호스트레스 정도는 평균평점이 3.87±0.56 (척도범위:1-5)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정도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 빈도를 분석한 결과 환자 및 보호자의 임종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평균평점 4.02±0.65 으로 가장 높았다.

대상자의 간호근무환경 정도는 평균평점이 3.25±0.60 (척도범위:1-5)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정도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빈도를 분석한 결과 실무체계가 3.56±0.65 으로 가장 높았다.

대상자의 소진 정도는 평균평점이 2.93±0.52 (척도범위:1-5)로 중간정도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 빈도를 분석한 결과 신체적 소진이 3.26±0.54으로 가장 높았다 [Table 2].

3.3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소진 정도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소진 정도는 연령 (F=11.401, $p<.001$), 직위($t=2.720$, $p=.007$), 종교유무 ($t=-3.032$, $p=.008$), 결혼상태($t=2.268$, $p=.024$), 임종교육($t=-2.466$, $p=.015$), 근무형태($t=-3.25$, $p=.001$), 평균 근무시간($t=-2.274$, $p=.024$), 간호직 만족도(F=32.058,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4 대상자의 임종간호스트레스, 간호근무환경, 소진에 대한 상관관계

대상자의 임종간호스트레스와 소진과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r=.206$, $p=.004$), 대상자의 간호근무환경과 소진과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중간 정도의 역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431$, $p<.001$)[Table 3].

3.5 대상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소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소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연령, 직위, 종교유무, 결혼상태, 임종교육, 근무형태, 평균근무시간, 간호직만족도와 소진과 상관관계가 있었던 임종간호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95)

Characteristics	Category	N	(%)	burnout			
				Mean±SD	t or F	p	Scheff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year)	<30 ^a	32	16.4	58.19±10.28	11.401	<.001	d<c<b
	30-39 ^b	55	28.2	63.90±10.39			
	40-49 ^c	61	31.3	58.74±9.80			
	≥50 ^d	47	24.1	52.66±8.18			
Education level	Diploma	117	60	57.87±9.78	0.910	.404	
	Bachelor	65	33.3	59.54±11.10			
	Graduate school	13	6.7	61.08±12.89			
Religion	Yes	119	61	56.87±9.14	-3.032	.008	
	No	76	39	61.42±11.75			
Marital status	Single	50	25.6	61.50±10.73	2.268	.024	
	Married	145	74.4	57.66±10.20			
Experience of death close relatives	yes	106	54.4	57.31±9.44	-1.954	.052	
	no	89	45.6	60.22±11.38			
Functional characteristics							
Geriatric hospital career (years)	<5	120	61.5	59.34±10.38	0.747	.475	
	5-9	59	30.3	57.71±11.14			
	≥10	16	8.2	56.81±8.09			
Total career (years)	<5	55	28.2	59.27±9.69	0.422	.657	
	5-9	50	25.6	57.50±11.03			
	≥10	90	46.2	10.63±10.63			
Position	General nurse	151	77.4	59.72±10.67	2.720	.007	
	charge/head nurse	44	22.6	54.93±8.78			
Experience of hospice education	yes	96	49.2	56.79±9.53	-2.466	.015	
	no	99	50.8	60.43±11.01			
End life care number of times /Month	1	58	29.7	59.02±9.96	0.211	.889	
	2-3	79	40.5	58.71±10.18			
	4-5	35	17.9	58.91±11.06			
	≥6	23	11.8	57.04±12.08			
Average monthly salary (10,000 won)	50-199	23	11.8	57.61±7.51	0.382	.766	
	200-249	128	65.6	59.21±10.85			
	250-299	38	19.5	57.66±10.98			
	≥300	6	3.1	56.67±8.66			
Working pattern	Shift work	98	49.8	56.26±10.19	-3.25	.001	
	Fixed work	97	49.2	61.00±10.21			
Average working (hours/day)	8hours	154	79	57.77±10.61	-2.274	.024	
	<9hours	41	21	61.90±9.19			
Department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a	13	6.7	46.54±8.33	32.058	<.001	a<b<c
	Satisfaction ^b	110	56.4	56.08±7.98			
	Moderate ^c	72	36.9	64.74±10.68			
Job transfer experience	yes	175	89.7	58.78±10.52	0.560	.576	
	no	20	10.3	57.40±9.98			

트레스, 간호근무환경을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명목변수인 연령, 직위, 종교유무, 결혼상태, 임종교육, 근무형태, 평균근무시간, 간호직 만족도를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였다.

산출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26.474(p<.001)$), 다중회귀분석의 독립변수들에 대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회귀분석의 공차한계(Tolerance)는 0.823~0.977로 0.1이상을 보였고, 분산팽창인자(VIF)는 모두 1.024~1.215로 10보다 작아 독립변

수간의 다중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하기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1.514로 오차의 자기 상관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요양병원 간호사의 소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간호직 만족도($\beta=0.302$)이었고, 간호근무환경($\beta=-0.294$), 나이($\beta=0.286$), 근무형태($\beta=-0.17$), 임종스트레스($\beta=0.16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41.2%였다[Table 4].

Table 2. Participants' Level of end life care stress, Nursing Work Environment, Burnout. (N=195)

Categories	Items	min-max	M ± SD	Range
End life care stress:	40	89-200	3.87±0.56	1-5
Negative attitudes against death by patients and their family caregivers	8	16-40	4.02±0.65	
Inner conflicts given limited availability of medical services	6	12-30	3.97±0.64	
Excessive workload	5	8-25	3.96±0.71	
Human conflict with terminal cancer patients	6	12-30	3.91±0.64	
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tise	3	5-15	3.86±0.71	
Difficulty due to lack of time for patients with terminal illness	7	15-35	3.85±0.62	
Burden in providing nursing for terminal cancer patients	7	9-35	3.56±0.77	
Nursing Work Environment:	30	30-143	3.25±0.60	1-5
work system	8	8-39	3.56±0.65	
head nurses' leadership	7	7-35	3.51±0.68	
Relationship with coworkers	4	4-20	3.38±0.68	
Institutional support	11	11-53	2.74±0.72	
burn out:	20	32-96	2.93±0.52	1-5
Physical burnout	6	11-28	3.26±0.54	
Emotional burnout	7	7-35	2.89±0.66	
mental burnout	7	7-35	2.70±0.59	

Table 3. Correlations among burnout for End life care stress and Nursing Work Environment (N=195)

Variables	burnout	
	r	p
End life care stress	.206	.004
Nursing Work Environment	-.431	<.00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Burnout (N=195)

Variables	R	Adj.R ²	B	SD	β	t	p	Collinearity	
								Tolerance	VIF
Satisfaction*	.448	.200	-6.513	1.288	-.302	-5.059	<.001	0.875	1.143
Nursing work Environment	.538	.290	-.171	.036	-.294	-4.776	<.001	0.823	1.215
Age*	.604	.365	5.996	1.183	.286	5.069	<.001	0.977	1.024
Working pattern*	.621	.386	-3.533	1.199	-.170	-2.948	.004	0.941	1.063
End life care stress	.642	.412	.077	.027	.164	2.877	.004	0.962	1.040

F=26.474, p<.001, Durbin-Watson 1.514

*Dummy coded: Satisfaction(moderate=0, very satisfaction, satisfaction=1), Age(<40=0, >40=1), Working pattern(Fixed work=0, Shift work=1)

4. 논의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스트레스와 간호근무환경, 소진의 정도 및 관계를 파악하고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소진을 낮추기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두변수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첫째, 요양병원 간호사의 소진정도는 평균 58.64±10.45 평균 평점 2.93±0.52점(5점 만점)으로 중간 정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Byun[5]의 연구에서는 3.01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

하게 나타났다. 동일도구를 사용한 연구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중앙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23]의 연구에서 소진의 평균평점이 3.19점으로 나타났으며,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11]의 연구에서 3.18점으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아동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2.63점으로 연구 결과 보다 낮게 측정되었으며,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Yu[15]의 연구에서는 3.23점으로 본 연구결과 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요양병원 근무하는 간호사의 소진 정도가 대상자에 따라 각기 다른 근무환경과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소진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소진이 평균평점 3.26 ± 0.54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결과는 Byun[5]와 유사하였다. 이 결과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경우, 근무시간 동안 앉아서 하는 업무보다는 서서 환자를 간호하는 시간이 많아 신체적 피로감이 누적된 결과로 보여진다. 따라서 간호사들의 신체적 소진을 낮추기 위한 체력 단련 및 스트레칭과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요양병원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직위, 종교, 결혼상태, 임종교육, 근무형태, 평균근무시간, 간호직 만족도가 있었다. 이는 Park[4]의 연구에서 연령, 종교, 평균임금, 하루 평균 근무시간, 총임상경력, 담당 환자 수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연령에서 30~40세 미만 군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중간 역할을 하는 30대 간호사들은 환자를 돌보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하고 후배와 선배간호사들 사이의 완충역할을 해야하므로 이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 부담감을 많이 받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직위에서는 일반간호사들이 높게 나왔으며, 이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Byun[24]의 연구결과와 같다. 직위가 낮은 간호사는 자신의 일에 익숙하지 않고 자신의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모호하여 소진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종교유무에서는 없는 군이 종교 있는 군보다 높았는데, 이는 인간이 한계 상황에 부딪치게 되면 의지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므로[25], 종교가 있는 군이 소진 상태가 왔을 때 자신의 신앙심으로 보다 긍정적으로 해소하기 때문에 소진의 정도가 낮게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결혼 상태에서는 미혼이 소진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Yu[15]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여성이 대부분인 직업적 특성상 기혼자에게는 양육이나 집안일과 관련된 배려가 주어지는 대신, 미혼자에게는 정해진 업무시간 외에도 일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기대치를 강요받고 있어 소진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혼인 경우에는 미혼자보다 정서적 갈등해결에 대한 경험이 많으며 가족이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므로 소진 정도가 더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종교육에서는 없는 군이 소진이 높게 나와 임종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조 되었다.

근무형태에서는 고정근무 군 소진이 높게 나온 것으

로 나타났는데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한 Choi[26]의 연구결과 낮 고정 근무간호사가 교대 근무 간호사를 비교한 결과는 소진 점수가 낮게 측정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요양병원에서는 급성기와는 다른 힘든 간호업무와 부담스러운 서류작업, 환자 목욕 및 수발, 평가표 작성 등이 대부분 낮 근무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밤 고정 근무역시 적은 인원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하여 소진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평균근무시간은 9시간 이상인 군이 8시간 군보다 소진 정도가 높았다. 이는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직무 피로감이 누적된 결과로 소진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전문직으로서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불만족’ 군의 소진 정도가 ‘만족’군과 ‘매우만족’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는 간호직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대상자의 소진 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임종간호스트레스는 평균 3.87점(5점 만점)으로 이는 암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Lee[17]의 연구에서 3.94점과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11]의 연구에서 3.72 그리고 일반병동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7]의 연구에서 4.0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노인요양병원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임종간호 스트레스 수준이 급성기 병원의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임종간호 스트레스 수준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요양병원 대상자들은 급성기 환자에 비해 임종이 예견되어 있고 입원기간이 길고 입원시 DNR동의를 받고 있지만 임종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에게 임종간호 스트레스는 다른 스트레스보다 높은 스트레스임을 알 수 있다. 하위 영역별 비교 시 환자 및 보호자의 임종에 대한 부정적 태도 4.0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과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2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환자에게 죽음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없는 간호사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간호사의 임종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임종교육을 간호사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에게 실시하여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완화시키고 받아들임으로써 환자가 편안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두 번째로 의료한계에 대한 갈등 3.97이 하위영역에서 높게 나왔다. 이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스트레스 수준

을 분석한 Chung[28]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에 대해 Lee[17]은 간호사가 임종환자를 간호할 때 적극적으로 소생을 시도할 수 없이 지켜보아야 하고 전문직 간호사로서의역할을 자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무력감 의료관계에 접하면서 갖게 되는 회의감과 거부감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의료관계는 항상 존재하며 죽음 또한 삶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수용하고 주어진 의료 환경과 상황에서 말기질환자의 남은 생을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며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도록 돕는 교육을 간호사에게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7개의 하위 영역 중 세 번째로 업무량 과중 3.96이 임종간호스트레스 하위영역에서 높게 나왔다. 임종간호는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측면의 전인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며 환자만이 아니라 그 가족도 간호대상에 포함해야 하며 임종환자간호뿐 아니라 다른 환자 간호도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어 임종간호는 간호사에게 업무를 과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는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업무량 과중을 해결하기 위한 병원의 적절한 인력배치와 함께 행정적인 업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간호근무환경은 평균 3.25(5점 만점)이었다. 하부영역별로 살펴보면 실무체계가 3.56점으로 가장 높았고, 수간호사의 리더십 3.51점, 동료와의 관계 3.38점, 기관의 지원정책 2.7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Park[14]의 연구,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ung과 Kang[2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실무체계 영역의 점수가 높았던 것은 요양병원 간호사들은 24시간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일상생활관리는 물론 기본간호에서부터 기도흡인, 욕창간호, 투약, 환자평가표 작성 등 다양한 영역의 간호를 수행하는 힘든 상황에서 동료간호사들과 서로 지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기관의 지원정책이 가장 낮게 인식된 점으로 보아 간호사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 휴식 공간, 건강증진 프로그램, 물품의 지원과 휴가 정책에 대한 병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상관관계분석에서 본 연구 결과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스트레스와 소진 정도는 $r=.206, p=.004$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종간호스트레스에 대한 소진을 연구한 Kim[11]의 연구결과와 같다. 본 연구 결과를 기초자료

로 활용하여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의 개념에 대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간호사의 소진을 낮출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환자 간호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반면 간호근무환경과 소진의 정도는 $r=-.431,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Yu[12]의 연구결과와 같다. 효율적인 간호인력 관리를 위해 만족도가 높은 간호근무환경 조성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간호 만족도, 간호근무환경, 나이, 근무형태, 임종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설명력은 41.2%였다. 이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Byun[24]의 연구에서 소진 영향 요인으로 간호직 만족도가 가장 많은 설명력을 보여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간호직 만족도에 따라 소진 정도가 변화될 수 있으므로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사명감을 높일 수 있는 전략 개발이 필요하겠다.

긍정적인 간호근무환경 하에 있는 간호사들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고 소진의 경험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소진 감소를 위한 조직 관리적 측면의 접근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효율적인 간호인력 관리를 위해 만족도가 높은 간호근무환경 조성으로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정적 지원 프로그램, 휴식 공간, 건강증진 프로그램, 물품의 지원과 휴가 정책에 대한 병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나이에서는 40세 미만 군에서 소진 정도가 높았으므로 환자를 돌보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하고 후배와 선배간호사들 사이의 완충역할을 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 부담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료되며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근무형태에서는 고정근무가 요양병원에서는 급성기와는 다른 힘든 간호업무와 부담스러운 서류작업, 환자 목욕 및 수발, 평가표 작성 등이 대부분 낮 근무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밤 고정 근무역시 적은 인원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하여 소진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되므로 근무일정을 적절히 조절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및 인력보강이나 업무량 조정이 필요하다.

임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자와 가족에게 간호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임종간호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서 임종간호교육을 간호사 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실시함으로써 말기질환자의 남은 생을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며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임종간호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의 배치, 스트레스관리, 의사소통 방법, 임종간호교육 등이 필요하며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행정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임종간호스트레스와 간호근무환경과 소진을 중심으로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 대상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직 만족도, 간호근무환경, 나이, 근무형태, 임종간호스트레스로 전체 설명력은 41.2%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소진을 줄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요양병원 간호사의 소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간호사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지지적인 근무환경 조성 및 인센티브 제공, 효율적인 업무분담이 필요하다.

둘째, 임종간호교육의 프로그램 개발 및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차원이 필요하며,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실험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4[Internet],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_T_1B01003&vw_cd=MT_ZTITLE&list_id=A41_2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Accessed February 1, 2017)
- [2]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6[Internet],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4&tblId=D_T_HIRA43&vw_cd=MT_ZTITLE&list_id=354_MT_DT_ITLE&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Accessed February 1, 2017)
- [3]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Internet], Medical Law, Cited February 3, 2017,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9D%98%EB%A3%8C%EB%B2%95%20#AJAX>. (Accessed February 1, 2017)
- [4] J. W. Park, E. J. Choi, "Factors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of Nurses Working in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1, pp. 7403-7413,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1>
- [5] B. J. Byun, S. H. Chang, J. H. Chang, "Factors affecting the exhaustion of the nurse in the senior hospital",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Health and Welfare for Elderly*. Vol. 5, No.1, pp. 105-119. 2013.
- [6] J. S. Choi, S. M. Park, "Comparison of Job Stress, Hardness, and Burnout of Nurses between Advanced general Hospitals and general Hospitals"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2, No. 3, pp. 251-259, 2012.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2.12.03.251>
- [7] M. Y. Lee, "End-of-life Care Stress and Strategies of Coping and Relief among Nurses",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Seoul, 2012.
- [8] Y. C. Cho, "Emergency Nurses' Perception of Death and Terminal care Attitude", 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Suwon, 2011.
- [9] J. H. Kim, H. K. Lee, "Cancer Unit Nurses' End-of-Life Care-Related Stress, Understanding and Training Needs", *The Korea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 15, No. 4, pp. 205-211, 2012.
- [10] J. H. Yang, S. R. Shin,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Death Perception, Spiritual Well Being and Terminal Care Stress of Geriatric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6, pp. 510-520.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6.510>
- [11] H. S. Kim, "End-of-Life Care Stress, Spiritual Well - Being and Burnout among Critical Care Nurses", Graduate school of Catholic University, Seoul, 2014.
- [12] J. Kwon, Determinants of satisfaction in Geriatric hospitals: based upon the consumption value model [dissertation], Kyungwon University, Seongnam, 2010.
- [13] S. H. Lim, A. R. Shin, The dignified dying for the elderly in geriatric hospital.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 28, No. 4, pp.93-115, 2012.
- [14] S. H. Park, J. Y. Kang,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Korean Nursing Work Environment Scale",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 Vol. 8, No. 1, pp. 50-61. 2015.
- [15] J. I. Yu, "Effects of Nursing Work Environment, Job Stress and Burnout on Turnover Intention in Clinical Nurses",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Chungju, 2015.
- [16] E. H. Cho, Mona. Choi, E. Y. Kim, E. Y. Yoo, N. J. Lee,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ractice Environment Scale of Nursing Work Index for Korea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1, No. 3, pp. 325-332. 2011.
DOI: <http://doi.org/10.4040/jkan.2011.41.3.325>
- [17] Y. O. Lee, "A Study of Cancer Unit Nurses' Stress from

Bereavement Support”,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Seoul, 2004.

- [18] E. M. A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Burnout, Job satisfaction of Nurse at Long term care hospital”, 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Suwon, 2013
- [19] B. S. Park, “The influence of nursing workers’ in elderly long term care hospitals job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exhaustion”, Graduate school of Seoul Christian University, Seoul, 2013.
- [20] H. J. Kim, H. R. Lee, S. O. Choi, “Resilience to Burnout, Self-esteem and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 vol. 15, No. 3, pp. 218-228, 2013.
- [21] A. M. Pines, E. Aronson, D. Kafry, "Burnout: From Tedium to Personal Growth", New York: The Free Press, 1981.
- [22] E. H. Peek, "A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levels among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1982.
- [23] K. D. Kim, “Relationships Between Job Stress,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Among Nurses Working in Oncology Units” Graduate school of Kosin university. Busan, 2011.
- [24] D. S. Byun, Y. H. Yom, “Factors Affecting the Burnout of Clinical Nurses : Focused on Emotional Labor”,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15, No. 3, pp. 444-454, 2009.
- [25] J. S. Park, T. Y. Jung,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religiosity scale in Korea”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Studies*. Vol. 62, No. 2011, pp.41-69, 2011.
- [26] H. J. Choi, “Comparison of Health Conditions, Sleeping Condition, Job Satisfaction, Burn-out and Commitment to organization job between Nurses Working only during Day and Those Working in Shift”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Seoul, 2008.
- [27] H. R. Kim, “Attitude towards Death, Stress and Attitude on the Terminal Care among Medical Ward Nurses with Terminal Experience” Graduate school of Catholic University, Busan, 2014.
- [28] S. Y. Chung, “A study on terminal care stress and terminal care performance of ICU nurse”,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Seoul, 2013.
- [29] H. J. Jung, J. Y. Kang, “Critical Care Nursing Work Environment and Family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 Vol. 7, No. 2, pp. 58-67, 2014.

이 지 현(Ji-hyeon Lee)

[준회원]



- 2012년 2월 : 동아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6년 3월 ~ 현재 :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성인간호, 노인간호

박 정 숙(Jeong-Suk Park)

[정회원]



- 2005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0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관심분야>
모성간호학, 노인간호